

홍콩항공·오사카공항·도쿄하네다공항, 2018년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시운항성 주도

싱가포르--(BUSINESS WIRE)-- 홍콩항공(Hong Kong Airlines)이 시간을 가장 잘 엄수하는 항공사로 다시 한 번 이름을 올렸다. 전 세계 항공사 및 공항을 대상으로 매년 정시운항성(on-time performance, OTP) 등급을 발표하는 OAG의 ‘2019 정시운항 평가보고서(OAG Punctuality League 2019)’에 따르면 홍콩항공의 정시운항성은 아시아태평양 기준 1위, 전 세계 기준 3위를 차지했다.

2019 정시운항 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글로벌 상위 10대 정시운항 항공사에 홍콩항공이 3위, 방콕항공(Bangkok Airways)이 5위, 콰타스항공(Qantas Airways)이 6위를 기록했다.
- 일본항공(Japan Airlines)과 전일본공수(ANA)가 글로벌 초대형 항공사 부문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 도쿄 하네다국제공항이 글로벌 초대형 공항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오사카국제공항이 대형 공항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삿포로공항과 후쿠오카공항이 10대 정시운항 대형 공항에 이름을 올렸다.
- 중국 3대 항공사인 중국남방항공(China Southern), 중국동방항공(China Eastern), 중국국제항공공사(Air China)의 2018년 정시운항성이 각각 15위, 17위, 19위를 차지해 정시운항률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방콕항공(Bangkok Airways), 아스타나항공(Air Astana), 솔라시드항공(Solaseed)이 아시아태평양 기준 상위 10대 정시운항 항공사에 올해 처음 이름을 올렸다.
- 인도 인디고항공(IndiGo)이 글로벌 저가 항공사 부문에서 7위를 기록했다. 2018년 항공편을 2017년 대비 28% 늘린 가운데 정시운항성도 크게 개선해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마유르 파텔(Mayur Patel) OAG 일본아시아태평양지역(JAPAC) 영업이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18년 항공편이 2017년 대비 6.3% 증가한 1260만 편에 달할 정도로 항공객 시장이 급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또한 2018년 이용 가능한 좌석은 약 21억개로 7.3% 증가한 정원을 상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항공사 및 공항들은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이겨내고 다시 한 번 뛰어난 비즈니스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시아태평양 상위 10대 정시운항(OTP) 항공사

순위	항공사	2018 정시운항률
1	홍콩항공	88.11%
2	방콕항공	87.16%
3	칸타스항공	85.65%
4	전일본공수	84.43%
5	제트스타아시아	84.13%
6	일본항공	83.99%
7	아스타나항공	83.52%
8	싱가포르항공	83.46%
9	솔라시드항공	82.90%
10	인디고항공	81.70%

OAG 개요

OAG는 전 세계에 여행 데이터를 제공하는 선도 업체로서 1929년 이래 항공여행 생태계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해왔다.

OAG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싱가포르, 일본, 리투아니아, 중국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190103005542/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언론 연락처

OAG

캐롤라인 마더(Caroline Mather)

pressoffice@oag.com